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투**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3.5.2.(화) 조간	배포	2023.5.1.(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공매도조사팀	책임자 담당자	국 장 이승우 (02-3145-5650) 팀 장 심재호 (02-3145-5636)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최초 적발 -

주요 내용

- 국내 주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증가**(지난해 대비 3배↑)하는 가운데,
 - * 4월 들어 일평균 (코스피) 6,043억원, (코스닥) 3,561억원 기록
 - ** 과열종목 지정 건수 : ('23.1.1.~4.28.) 253건, (전년 동기) 83건
-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금융감독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22.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후 '22.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4명→8명),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불법 공매도 엄단 경과

무차입 공매도 엄정조치

- 무차입 공매도 76건 신속 조사
→ 33건 조치 완료(43건 조치예정)
- '23.3월, “과징금 최초 부과”
→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5억원 부과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기획조사 집중 실시
- 악재성 정보 이용 대량 공매도,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 고발 등 조치 추진 예정

- 향후 금융감독원은 CFD, TRS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1. 불법공매도 엄단을 향한 그간의 노력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22.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공매도조사팀을 본격적으로 출범('22.8월)시킨 이후,
 -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으며, 적극적인 조사기법 발굴, 인력 확충 등 조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다수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 기획조사를 통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였고 특히,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

① 무차입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제재 강화

- **(집중 조사)**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건은 조치 예정입니다.
 - * 31건 과태료 21.5억원 부과(과징금 도입 前), 2건 과징금 60.5억원 부과
 -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 '23.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5억원의 '과징금'(각각 38.7억원, 21.8억원)을 '최초로 부과'하였습니다.
- **(제재 강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 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나,
 -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치 예정인 43건도 대부분 과징금 건으로서 순차적으로 조치를 완료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리겠습니다.

②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 **(집중 분석)** 블록딜,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을 집중 분석하였고,
 - 이 중 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하여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 **(주요 혐의내용)**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하거나,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하여 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외국계 헤지펀드인 혐의자들은 블록딜 매수자로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하여 블록딜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켰고,
 - *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주로 이용하는 주문 방식으로 동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PBS)가 포지션 헷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
 - 블록딜 확정 이후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前에는 미리 매도스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습니다.
 - 한편, 매도스왑 외에도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혐의도 포착하였는 바,
 - 이는 특히,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것으로서 엄중하게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 동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검찰고발 등 형사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공매도조사팀 출범 후 공매도 조사·조치 내역

1. 무차입 공매도 조사

- 공매도조사팀 출범('22.8월) 후 무차입 공매도 건 76건을 신속하게 집중 조사하여 '23.4월 현재까지 총 33건을 처리 완료
 - 이 중 올해 처리한 2건은 최초로 과징금(총 60.5억원)을 부과한 건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무차입공매도 조사·조치 현황

조사·조치 연도	위반자수	위반자 구분		조치내용	부과 금액 (백만원)
		외국인	국내기관		
2010~2017	86	80	6	과태료(30)·주의(56)	664.0
2018	5	5	-	과태료	7,539.0
2019	10	9	1	과태료	468.0
2020	4	4	-	과태료	732.0
2021	14	14	-	과태료	799.5
2022	34	31	3	과태료	2,429.8
2023.4월**	52	41	11	-	-
	2	2	-	과징금	6,057.8
	7	7	-	과태료	1,115.8
계	205	184	21	조치완료 : 과태료(104)·주의(56)·과징금(2)	

* 이 중 24건이 '22.8월 공매도조사팀 출범 후 조사·조치한 건임

** 과징금(2건), 과태료(7건) 외 43건은 조치예정 건(과징금 42건, 과태료 1건)

2.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

-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과 관련된 종목을 집중 분석하여 조사 필요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 기획조사
 - (악재성 정보 이용) 블록딜, 유상증자, 임상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동 정보를 이용하여 공매도하는 유형 등에 대해 분석·조사
 - (시세조종·현선연계)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하락,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을 분석·조사

2. 계속되는 불법공매도 엄단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입니다.

①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 ◆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의심되는 CFD, TRS와 연계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 ◆ 그간 진행하여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할 것입니다.

②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적극 점검

-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고,
- ◆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 추가 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할 예정입니다.

-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